

## 근대초기 소설독자와 작가, 서사주체의 상관성 연구

김희주\*

### 요약

한국의 근대 초기는 당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집단의 아비투스<sup>1</sup>가 형성되던 시기였다. 일반 독자가 아닌 국민으로 지목된 독자들은 작가의 논설이나 정론에서 중요한 대상이었다. 소설도 국민전체의 정치적 동참을 촉구하는데 그 일부를 담당하였다. 국민독자를 겨냥한 작가는 서사 내에서 독자들에게 정치적 발언을 지향하였다. 답화의 내용이 무엇을 전달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시되었기 때문에 발화주체가 작가인지, 서사인물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반면 「치악산」과 같은 신소설의 서사주체는 서사구조 속에서 독자에게 발언하지 않고 서사내의 인물들과 반목하고 답화함으로써 서사가 지목하는 문제의식보다 서사인물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자는 점차 국가의 폐해로부터가 아닌 가족 간의 문제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고 극복하는 과정에 더 실질적인 호응을 했다. 출판법의 영향과 검열의 문제가 있었다하더라도 소설의 판매부수는 독자의 성향을 자연스럽게 대변한다.

근대 초기 국민독자를 겨냥했던 작가는 발언에 치중하였고, 소설독자를 겨냥했던 작가는 스토리를 주조하는데 주력했다. 그리고 이들 소설주체들은 각각 작가의 발언에, 독자의 호응에 의지하였다. 그리고 점차 독자는 스토리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초기의 내포독자는 독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잠정적인 독자, 가정된 대상이라

\* 공주대학교 기초융합교육원 강사



할지라도 내포독자는 작가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의미한 독자라 할 수 있다.

주제어: 근대초기, 소설독자, 실제독자, 내포독자, 서사주체, 서사인물

목차

1. 서론
2. 근대초기 소설의 독자
3. 국민독자의 서사주체
4. 실제독자의 서사주체
5. 결론

## 1. 서론

근대 소설의 독자는 문화 엘리트들의 계몽주의의 수동적 ‘대상적’ 존재인 듯하지만, 그들은 상당히 주관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작가들과 소통하며 결코 문화적 엄숙주의에 침윤되지 않는 존재들로서,

독자는 대중(mass)이자 공중(public)이며 소비자이자 이데올로기에 호출 당함으로써 구성되는 주체들<sup>1)</sup>이라 할 수 있다. 독자가 주체라는 지점은 작가와 문학 작품과의 긴밀한 상관성을 내포한다. 작가가 구상한 문학 작품의 세계는 이를 읽는 대상독자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 읽는 대상에 따라 서사의 구상이 달라지므로 문학작품은 일종의 작가와 독자와의 관계맺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독자는 작품 개입의 가능성을 지녔다는 전제 하에서 수동적

1) 천정환, 『한국 근대 소설 독자와 소설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17면.

‘대상적’ 존재가 아닐 수는 있으나 이데올로기에 호출당하는 존재라는 측면에서는 수동적 대상이 되므로 이중성을 지닌다. 이로 말미암아 독자는 실질적으로 ‘실재독자’와 ‘내포독자’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실재독자(Real reader)란 구체적인 텍스트와 접촉하여 그것을 읽고 감상하는, 작품 외부(현실)에 실제로 존재하는 수용자를 말한다.<sup>2)</sup> 즉 실재독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독자’를 뜻한다. 문학 작품이 있고 독자가 형성되는, 실질적으로 작품을 읽은 후에 형성되는 독자들이다.

내포독자(Specified reader)란 실제 작가가 텍스트를 조직할 때 가정하는 독자로서, 이는 작가가 특정한 자격과 성향 등을 부여한 독자이다.<sup>3)</sup> 내포독자는 작가에 의해 상상된 독자이지만 실재독자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를 지닌다. 작가의 작품을 읽게 될 이 상상된 독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문학작품의 실질적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가가 내포 독자를 염두하고 쓴 문학작품은 의도된 목적이 투영된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의미가 ‘쉽게’ 금방 발견되는 그런 문학텍스트의 경우, 독자는 도식화된 견해에 따라 독서과정에서 사고의 주체가 되는 능동성을 박탈당할 뿐 아니라 ‘문학적 소통의 가능성’조차 필요로 하지 않는<sup>4)</sup> 수동적 존재가 될 가능성을 지닌다.

어떤 개인이 포착한 문제의식은 개인의 것이지만, 이것이 문학작품이 될 경우, 그 작품은 개인의 것이 아니다. 작가는 얼마든지 의도적으로 문제의식을 조작할 수 있다. 또는 그 문제의식을 공유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내포독자란 이러한 과정에서 발생한다. 작가의 문제의식은 독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데

2) 조윤형, 『고소설의 독자(讀者) 연구』, 『독서연구』 17권, 한국독서학회, 2007, 332면.

3) 조윤형, 위의 논문, 346면.

4) 차봉희편저,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119면.

올로기적이다. 그러므로 어떤 작가에게 있어서 내포 독자란 결국 작가의 목적, 다시 말하면 문학작품을 쓰는 목적이 될 수 있다.

한국의 근대 초기는 이러한 내포독자를 대상으로 목적성이 강한 소설들이 대거 출현했던,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당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집단의 아비투스<sup>5)</sup>가 형성되던 시기였다. 같은 계급에 속한 구성원들, 지식인층이 공동의 가치관을 지니고,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고유한 기준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아비투스는 동일 계급 사람들 간의 집합무의식collective unconscious이라고 할 수 있다. 독자가 국민이 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다. 신소설과 함께 전의 양식인 역사소설이 많이 성행했던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장지연의 『애국부인전』(1907), 우기선의 『강감찬전』(1909), 박은식의 『연개소문』(1909)과 같은 전기류는 역사적 위인 자체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국난 극복을 드러내기 위한 작품들이다. 이러한 작품은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을 겨냥한 것이다. 국난 속에서 이들 작품은 당시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한 바, 이는 작가의 문제의식과 독자의식의 일치가능성을 뜻한다.

권영민은 “개화기 소설의 작가들은 문학(또는 소설)이라는 특정분야의 전문가였다기보다는 당시 사회의 모든 국면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상이면 무엇이든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광범위한 지식층의 인사”<sup>5)</sup>라고 하였다. 당시 사회의 모든 국면을 움직이고자 했던 본질적 사상의 핵심이란 국권회복이었다. 지식인들은 이것을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었다. 국민 전체가 ‘민족’으로서, 한글이 ‘민족어’로서 호명되었던 이 시기, 한글로 쓰기 시작했었던 문학은 그러한 점에서 중요한 매체로서 인식되었다. 그러나 1920년대 이후의 소설들이, 1910년 이전의 목적적 소설들과 달리 빠르게

5) 권영민, 「안국선과 개화기 지식인의 환상」, 『한국민족문학연구』, 민음사, 1988, 75면.

근대 소설의 형태로 정착되고, 허구적 인물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선보인 것은 내포독자가 실제독자를 극복하지 못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대 초기의 내포독자는 독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그것이 잠정적인 독자, 가정된 대상이라 할지라도 작가의 이 의도는 근대 초기 목적소설의 한 특성을 형성하는 데 일조하였다. 서사 인물들이 개인의 사적 탐색이 아닌 국가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 스토리의 짜임새가 허구의 세계를 창조하기보다 현실위기를 여러 방식으로 드러내려고 시도했다는 점은 내포독자를 설정한 당대 소설의 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근대 초기, 작가들은 국민독자를 어떤 대상으로 인식하였는지, 독자를 과연 계몽의 대상으로 인지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작가와 독자의 관계, 서사주체들의 상관성을 근간으로 근대 초기 소설독자들을 검토하고 작가의식에 따른 서사주체들의 특성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 2. 근대초기 소설의 독자들

독자는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소설 독자는 꾸준히 있어왔다. 그러나 소설의 위상은 조선조와 근대에 이르러 다르게 인식되었다. 주지하다시피 근대 이전, 당시 사대부들은 소설의 비윤리성과 패륜성, 사실의 왜곡성을 들어 소설무용론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설은 조선 후기에서 19세기 초까지 꾸준히 유통되었고 사대부 독자층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부녀자 등으로 상당한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 근대에 이르러 소설의 유통은 더 활발해졌으므로 작가들의 독자에 대한 기대는 더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고소설의 독자층이 근대로 유입되었을 가능성을 짐



작하기 어렵지 않다. 그렇다면 소설을 읽는 자들은 누구인가. 최운식은 고소설의 독자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sup>6)</sup>

	남성	여성
직접적인 독자	(I) 한문과 국문을 아는 남성독자 (III) 국문만 아는 남성독자	(II) 한문과 국문을 아는 여성 독자 (IV) 국문만 아는 여성 독자
간접적인 독자	(V) 남성 청자	(VI) 여성청자

조선시대의 한문소설 혹은 소설자체를 ‘읽을 수 있는’ 독자층은 식자층이었다. 사대부나 상류층의 여성들이었을 것이다. 소설 창작 행위가 쉽게 용인되는 분위기가 아니었음은 소설의 저작자를 밝히지 않는 예에서 찾을 수 있다. 소설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고소설 독자들은 그 한정된 식자층에도 불구하고 이들 독자는 실제독자였을 가능성이 높다.

『李朝時代小說論』의 「讀者」라는 항목에는 소설을 蛇蝎視하고 賤待하는 儒學者들도 小說의 讀者였음은 틀림없는 事實이며, 특히 被支配階級인 婦女들의 안방, 하인(下人)들이 거처하는 사랑방은 小說을 읽고 듣는 一種의 싸롱<sup>7)</sup>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유학자뿐만 아니라 안방에 거처하는 아녀자들과 하인에 이르기까지, 그 듣고 읽는 대상이 소설이라는 점은 소설의 보편성과 함께 직·간접적 독자라는 분류를 무색하게 만든다. 다시 말하면 식자층이라는 점으로 소설의 향유계층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조동일은 18세기 초의 소설낭독자들의 출현과 세책가에 관한 자료 등을 통해 국문 소설 坊刻本은 18세기 초부터 나타나 19세기에 성행하였다<sup>8)</sup>고 하였다. 조선후기에서 근대초기에 이르는 시기 동안

6) 최운식, 『한국 고소설 연구』, 보고사, 2004, 126-140면.

7)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69, 79-83면.

방각본, 활판본과 더불어 고소설의 대표적인 상업적·대중적 유통의 중심에 있었던 세책본의 총 목록상에서 발견되는 세책의 특징은 그동안 알려져 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작품들이 실제 세책으로 유통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근대에 들어와 지식인층이 내포독자로서 국민을 지목한 것은 이러한 소설의 보급성과 관련이 있다. 일부 작가에 의해 독자는 일반 독자로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들은 국난 극복을 이끌 주체로서 인식되었으며 그리하여 새로운 독자층인 ‘국민독자’로 호명되었다. 이들은 내포독자로서 지식인들에 의해 출현된 가상된 독자들이었다. 시사를 개탄하고 정치언론과 국난극복과 관련된 소설이 대거 등장한 것은 당대 소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준다. 이는 당대 소설의 위상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설무용론을 주장했던 지식인층의 소설에 대한 인식전환을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의 위기극복과 관련된 소설(변안소설 포함)들은 일반 독자가 아닌 국가위기를 공유하고 있는 국민대상 소설들이라 할 수 있다. 『후례두익칠년전사(厚禮斗益七年戰史)』·『보법전기(譜法戰記)』·『나파룬전사(拿破崙戰史)』·『파란말년전사(波瀾末年戰史)』·『월남망국사』·『라마사(羅馬史)』·『서사건국지(瑞士建國誌)』·『미국독립사』·『법란신사(法蘭新史)』·『경제미담』·『애국부인전』·『피득대제전(彼得大帝傳)』 등이 유입되어 읽혔으며<sup>10)</sup>, 신채호의 『이태리건국삼걸전』·『을지문덕전』·『최도통전』·『이순신전』 등은 정치사상과 국가 관념을 반영한 시대적 산물이라고 평가 되었다.

책을 ‘읽은’ 실재 독자와 책을 ‘읽을’ 미래 독자의 차이점은 기획의

8) 조동일, 『韓國小說의 理論』, 지식산업사, 1979, 410-415면.

9) 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12.

10) 金台俊, 『增補 朝鮮小說史』, 『金台俊 文學史論選集』, 丁海廉편역, 현대실학사, 1997, 194-195면.

가능성과 함께 작가가 독자를 상상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작가의 지향이 강하면 강할수록, 시대의식이 대두되고 그 사명이 하나의 의제로 거론되면 될수록 어떤 작가는 독자의 의식을 자신과 동일화시키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논설가나 역사가들은 이용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적 기반 하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논설이나 정론에 비해, 소설가는 플롯, 인물, 주제를 엮어 환상을 창조하는 가운데 자신이 암시하고픈 가치에 맞게 사실을 선택하고 창조<sup>11)</sup>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자를 좀 더 의도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근대 초기 영웅 전기를 비롯하여 국민을 교화하고자 했던 ‘소설’이라는 장르는 신채호를 비롯한 많은 지식인층에 의해 이러한 시대적 과제로 실현되었다. 그러나 작가의 가치에 맞게 사실을 ‘선택·창조’할 수 있었던 ‘의도된’ 소설이, ‘의도한’ 국민독자를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文學의 癡醉劑를 먹은 後로 革命의 칼을 던지고 文藝의 붓을 잡으며 犧牲流血의 觀念을 버리고 新詩 新小說의 著作에 苦心하여 文藝의 桃源으로 安樂國을 삼는 까닭이다.<sup>12)</sup>

근대 초기 국민독자를 대상으로 소설을 쓴 신채호의 위와 같은 발언은 정치적 소설이 실제 독자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신채호는 문학의 본질을 ‘혁명과 희생유혈의 관념’을 지향해야 하는 것이라고 소명하였기 때문에 국민대상으로만 소설을 썼다. 그의 소설쓰기는 ‘국민이 민중으로 성장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의 문학에 투영된 서사 인물들은 개인의 사적 탐색이 아닌

11) 권택영, 『소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예출판사, 2000, 81면.

12) 신채호, 「낭객의 신년만필」, 『丹齋申采浩全集』下, 형설출판사, 1995, 32면.



국가와 연계된 범주 내에서만 행위하는 인물들로 형상화되어 있다. 일반 독자가 아닌 국민으로 지목된 독자들은 작가의 논설이나 정론에서 중요한 대상이었다. 소위 '대중성'에 동조하지 않고 국민전체의 정치적 동참을 촉구한 이와 같은 소설류들은 개인과 국가, 민족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 차원의 소설들은 사회주의 이념의 카프계열의 소설들이나 20세기 후반에 형성된 노동자주체의 소설들에서도 엿볼 수 있다. 즉 작가의 문제의식이 투영된 소설들은 실재독자를 겨냥했다기보다 이를 동조할 내포된 독자들을 호출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한정된 소설에 내포된 지향은 기대한 만큼 독자층을 확보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작품의 생산자는 작가가 아니라 독자이며, 독서의 주체는 작가가 아니라 현실적 의미를 제시한다.

現今 朝鮮사람 中에 大概는 아직 家庭小說을 豆화하오, 興味中心小說을 豆화하오, 참 藝術的 作品, 참 文學的 小序은 닐그려 하지도 아니하오, 그뿐만 아니라 이거를 輕蔑하고 操弄하고 不用品이라 생각하오, 甚한 사람 그런 거슬 닐그면 구역중이 난다고까지 말하오.<sup>13)</sup>

요사이 청년들 중에는 연애소설이나 혹은 그에 近似한 책을 많이 보고 있는 동안에 독서중독이 되어 연애를 외치고 연애 없는 가정은 파괴코자 하는 경향이 많다고 볼 수 있다.<sup>14)</sup>

비판의식이 깔려 있는 발언에서 당대 소설가들이 지향하는 소설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나, 독자의 위와 같은 성향이 이후 지속되었

13) 金治弘 編著, 『小説에 대한 朝鮮사람의 思想을……』(『학지광』 제17호, 1919년 1월), 『金東仁評論全集』, 1984, 三英社, 30면.

14) 김경재, 『결혼 문제에 대한 조선 청년의 변민』, 『신여성』 3권6호, 1925, 6, 16-17면.

다는 점에서 독자는 수동적이었다고 말할 수 없다. 소설독자의 성향은 예술적이거나 문학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이를 경멸하고 조롱했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제시문에서 언급한, 1919년의 ‘가정소설’과 ‘흥미중심소설’, 1925년의 ‘연애소설’의 공통점은 이들 소설들이 정치성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독서중독’이라는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여전히 소설이, 중독에 이를 만큼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아울러 그 대상이 ‘연애소설’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는 이데올로기에 호출당하는 수동적 독자라면 전환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위 제시문과 같은 독자의 추세는 곧 소설의 추세이다. 작가가 독자의 욕구를 수용했다는 것이다. 이로 보아 근대초기의 소설독자들은 작가의 이데올로기에 호출당하는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소설을 선택하는 능동적 독자라 할 수 있다.

### 3. 국민독자의 서사주체들

1908년 『大韓每日申報』 11월 8일자 의 논설은 근대 초기 개화기 소설에 대한 지식인들의 평가 기준이 작품자체에 있지 않고 국가와 연계된 민족적 차원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900년대 소설독자가 형성되는 과정은 곧 국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으며, 소설독자는 곧 ‘국민’이라는 생각이 ‘당위’<sup>15)</sup>가 되는 시기이기도 했다.

只是牟利的起是으로 爲妾辨護의 「鬼의 聲」과 如한 小説을 著하야 社會上의 道德만 破壞하고

15)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8, 79면.

당시 이인직과 같은 개화기 작가들에 대한 비판에서 알 수 있듯이 일부 작가들은 ‘문학-독자’ 사이의 기존의 관계를 ‘문학-국민독자’의 관계로서 새롭게 모색하게 되었다. 『귀의 성』과 같은 류의 소설들은 국가의 위기보다는 문명 개화의식이 주된 테마였으며 이는 안국선의 소설, 역사전기류 소설과 같이 민족의 입장을 대변하는 소설들과 매우 대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일부 소설가들이 국가 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소설독자를 국민독자로 지정한 것은 당대 사회적 분위기가 국가에 대한 관심으로 팽배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통감이라는 통자는 거나릴 통이오, 통감이라는 감자는 불감자니, 그 통감 두 글자를 합하여 말하게 되면 도통 거날여 본디는 말 아닌가... 우리나라 일반 국민에게는 어찌 기막히고 한심한 일이 아니리오... 슬프고도 슬프도다 우리나라 형편됨과 우리 동포 진정됨은 산첩첩 수중중에 의심타 하리로다. ... 자탄 말고 사다리와 선척 등을 어서 바빠 준비하오.<sup>16)</sup>

인력거를 끄는 무식한 자들을 통해 당대 일본의 통감정치를 야유하고 식민현실을 비판하는 목소리는 신문매체의 논설, 정론, 소설 등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추세였다. 앞에서 언급한 외국 번안소설들의 유입과 독자층의 형성도 이러한 국내 분위기를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국민독자 대상의 소설들은 그 소설의 주체들도 국가와의 관계망에서만 탐색되고 공익에 우선하는 발언자로서만 존재하였다. 이들 작가들의 단점은 독자의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독자의 욕망이 서사주체의 욕망과 일치할 때 그 소설은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읽은’ 독자가, 다음에 기대되는 ‘읽을’ 소설을 욕망할 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1920년대 이후 국가지향의 소설들이 점차 개인의 욕망을

16) 『車夫誤解』, 『大韓每日申報』, 161호, 1906.3.7.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서사주체의 욕망은 독자의 욕망을 읽어내는데 실패한 것으로 간주된다. 서사주체의 욕망이 국가애로 치환될 때 비로소 완료되며, 지속적인 발화행위를 반복하여 작가가 지향하는 목적을 끝까지 소설에서 수행하는 행위는 독자의 욕망이 아니라 작가의 욕망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들 소설의 특징은 실현되는 모든 문학적 상상력이 작가의식의 발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乙支文德은實로嬰陽王朝의乙支文德이아니라檀君子孫의乙支文德이며高句麗의乙支文德이아니라朝鮮民族의乙支文德이며<sup>17)</sup>

전국 인민은 다 외국의 노예와 개와 도야지 뒹을 붓그러운 욕이 되는 줄 모르고 하로라도 구차이 목숨 보전할 것만 다행으로 아니<sup>18)</sup>

그러면 오직 나라 사랑이며 동포사랑이며 대적에 대한 의분의 눈물만 씬닛가」『그러니라 기러나 그 눈물에도 眞假를 골느니라<sup>19)</sup>

작가 혹은 서술자의 직접 발언과 서사주체의 발언은 국가와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러나 작가가 서사 속에 들어가 발언하는 행위는 독자에게 발언하는 것이지만 서사주체의 발언들은 서사 내의 인물 간에만 이루어진다. 이 다름에서 오는

17) 신채호, 『을지문덕전』, 『단재신채호전집』, 단재신채호전집편집위원회, 독립기념관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8. 92면.

18) 장지연, 『애국부인전』(한말 일제하의 금서), 春秋之庫, 한국일보사, 1975. 33면.

19) 신채호, 『솜하늘』, 『신채호유고선집』, 연변대학출판사(영인 한국문학사), 1995. 24-66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 작가는 주요 서사적 장치로 담화를 활용하였다.

미리: (식민지의 민중은) 反抗할 境遇에도 反抗을 잘 못 합니다. 그런 즉 植民地의 民衆처럼 속이기 쉬운 民衆이 없습니다.<sup>20)</sup>

상제: 民衆이 우리를 믿던 때에 우리가 勢力이 있었지 지금에야 우리가 무슨 勢力이 있느냐. 勢力 없는 우리로서 民衆을 撲殺하려다가는 한갓 撲殺을 당할 뿐이니 民衆 撲殺-쓸데도 없는 말이다. …自覺한 民衆들이 그런 꺾임에 속느냐 그것도 옛말이지<sup>21)</sup>

국민독자를 설정한 작가의 경우는 지속적으로 독자들에게 발언하는 행위를 지향한다. 그것이 서사주체인가, 서술자인가하는 문제는 담화를 지속하는 동안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서사주체와 서사인물 간의 발언들이 ‘말하기’를 지속하는 행위 내에는 그 발언이 작가인가 서사인물인가는 중요하지 않고 담화의 내용이 무엇을 전달하는가가 중요해지기 때문이다.<sup>22)</sup>

위 제시문은 신채호의 『용과 용의 대격전』(1928)이다. 이 작품은 서사가 전체적으로 서사인물들의 담화행위로 구조되어 있다. 이들 담화의 주요 핵심은 지배층의 실체를 폭로하고 민중혁명의 당위성을 전달하는 것이다. 주목할 점은 담화의 주요내용이 민중혁명에 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담화를 하는 주체는 민중이 아니라는 점이다. 지배층의 실체와 민중혁명의 당위성은 민중이 아닌 지배층에 의해

20) 丹齋申采浩先生記念事業會, 『용과 용의 대격전』, 『丹齋申采浩全集』(別集), 螢雪出版社, 1977, 280-281면.

21) 신채호, 『용과 용의 대격전』, 別集, 287-290면.

22) 김희주, 『신채호의 서사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논문, 2018, 101-119면.

말언된다. 이들의 담화는 곧 작가의 발언이다.

「거부오해」나 「얕은뱅이문답」 같은 단형서사들의 담화방식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이들의 형상은 서술적으로 묘사되는 게 아니라 담화로서 존재를 드러낸다.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발언하고 있는 동안 청자가 실질적으로 듣는 것은 작가가 제기한 문제의식이다. 작가 혹은 서사주체에 의해 전달되는 모든 발언들이 국가위기와 관련된 동일한 주제라는 점에서 이들 서사는 서사인물보다 발언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반면 「치약산」과 같은 신소설은 이 부인이나 김씨 이야기의 결말에 집중하게 된다. 서사주체는 작가가 짜놓은 서사의 구조 속에서 독자에게 발언하기보다 서사내의 인물들과 반목하고 담화한다. 역경을 극복한 이의 발언이나 행위가 인생의 극한 상황과 연계되어 있기에 독자들은 서사가 지목하는 문제의식보다 서사인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실재독자와 내포독자의 간극은 작가가 서사주체의 일에 얼마큼 간섭하느냐의 문제에서 발생한다. 소설독자는 원칙적으로 책이 있는 연후에 책 읽은 것을 완료한 자로서 실재독자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실재독자는 내포독자보다 작가와 문학작품과 더 밀접한 상관성을 지닌다. 이들이 상업성에 노출되는 이유는 실재독자의 욕구가 충족되면 될수록 소비수요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근대 초기 작가가 설정한 내포독자인 '국민'은 독자의 욕구가 아니라 작가의 욕구에 의해 생성된 수동적 대상으로서 이들은 작가들의 소설과 담론에 기여하는 대상들이라 할 수 있다.

근대초기 신문매체에서 보이는 수많은 논설들은 이를 읽을 수 있는 식자층과 상관없이 국민에게 발언한 것이었다. 신채호의 소설이 민중 혁명을 주도한 내용임에도 그 혁명이 민중주체가 아닌 지배층의 발언만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은 현실가능성과 관계없이 국민

과의 동일화가 목적이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베네딕스 앤더슨(Benedict Anderson)이 소설과 담론 속에 ‘상상된’ 공동체의 주체들은 근대국가를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sup>23)</sup>고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상상된’ 독자들은 ‘상상된’ 근대국가를 만드는 데에 그쳤다.

#### 4. 실재독자의 서사주체들

근대초기의 지식인들의 내포독자들이 상상된 ‘국민’, 상상된 ‘근대 국가’의 일원으로 그친 데에는 현실적인 문제에서 기인되었다. 개화기의 대표적 지식인으로서 중요한 신소설의 작가였던 이인직·이해조·신채호·박은식 등은 모두 소설의 계몽적 효용과 ‘국민으로서의 소설 독자’를 생각했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독립과 진보의 방향은 서로 전혀 달랐고 따라서 이들이 소설 속에서 상정한 국민으로서의 독자<sup>24)</sup>도 달랐다. 천정환은 이에 대해 신소설이 등장한 기원의 불순함을 들었다. 소설 담론이 자주적인 ‘국민’과 ‘자강’을 지향한 것만은 아니었고 오히려 일본인 신문이나 친일 성향의 신문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신소설은 그 기원부터가 불순했다는 것이다. 신소설의 불순함이란 친일의 불순함이며 동시에 이를 읽는 독자의 불순함을 의미한다. 신채호·박은식과 같은 지식인층들의 입장에서, 신소설뿐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와 함께 들어선 근대의 것은 순결한 것만은 아니었다. 그들은 민지를 개발하고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은 물론 소설의 독자 역시 ‘국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강박적 관념을 지니고 있었다.<sup>25)</sup> 그러한 강박성으로 인해

23) B.Anderson, *Imagined Communities*, 윤희숙 역, 『민족주의의 기원과 전파』, 나남출판, 1991.

24) 천정환, 앞의 책, 79면.

그들이 형상화한 소설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치적이며 의식적이었다. 그러나 이는 정론적 글들보다 가벼움과 오락성의 소설을 좋아하는 수용자들의 욕망을 간과한 것이다.

치악산

菊初 先生 李人植 著

此 小說……間間히 無限히 滋味가 有호오니 速速 購覽호시  
압<sup>26)</sup>

소설과 연희演戲는 심상한 부인 여자와 시정 무식배기가 제일 감동하기 쉽고 제일 즐겨하는 바이다.<sup>27)</sup>

소설의 내용에 ‘무한한 재미’가 있다는 광고의 문구는 독자취향의 한 측면을 적시하고 있는 것<sup>28)</sup>이다. 이는 국민독자의 소설가들과 신소설 작가들의 차이점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국민독자의 작가가 독자를 ‘민족’으로 보았다면, 신소설의 작가는 그 불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독자’로만 인식한 것이다. 당대 민족이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는 과제를 지니고 있었다면 독자는 그저 소설을 소비하는 것뿐이었다.

讀者의 支持를 받지 못할 때 營業으로 成功할 수 없다는 데서 生存마저 危殆롭게 된다. 그러지 않아도 出版 특히 單行本은 뚜렷하게 個性的이기 때문에 새로운 圖書는 恒常 새로운 讀者를 좇아야 하고 그것이 如意치 못할 때는 經營이 失敗로 돌아간다.<sup>29)</sup>

25)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65면.

26) 『황성신문』, 1908.10.6.

27) 『소설과 연희가 풍속에 유관』, 『대한매일신보』, 1910.7.20.

28) 김석봉, 위의 책, 67면.

29) 安春根, 『出版概論』, 乙酉文化社, 1963, 66면.



위 제시문은 근대초기 상업화되어가는 소설시장을 언급한 내용이다. 근대초기 신문지법(1907)과 출판법(1909)의 시행으로 애국계몽 이념을 담은 출판물의 출간이 어렵게 되자 대량 제작이 가능한 소설이 그러한 경향을 더 부추겼다<sup>30)</sup>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의 상업화 증대는 어디까지나 독자에 의한 것이다. 그러므로 독자의 활성화를 통해서 비로소 텍스트가 구체화되고 이 구체화작업에서 “독자는 작가와 더불어 창작하고 있는 공동작자Mitautoren”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점은 문학적 텍스트가 그 수용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가능한 독자, 즉 텍스트 구조의 방향제시에 따라 생겨나게 될, 텍스트 구조에 내포된 소위 함축된 독자<sup>31)</sup>의 한계를 드러내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신소설 작가들이 독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국가의 위기와 다른 행보를 견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채호와 같은 애국 지식인들은 당대 소설의 추세와 신소설 작가들을 비판하였다. 그렇다면 불순한 신소설을 읽고 상업적으로 이용당하는 이 불순한 소설의 독자층들은 누구인가. 이들이 바로 근대 초기 애국계몽지식인들이 호명했던 내포독자였으며 동시에 실재독자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인지 신채호의 소설에서 보이는 민족의 형상은 초기의 국민전체에서 점차 정신적 민족을 민중의 일원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내포독자의 범주에 속했던 이들이 모두 국민독자로 동승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실재독자층인 이들은 이데올로기에 호출당하지 않는 능동적 독자라고도 할 수 있다. ‘독자의 지지’ 유무로 출판업자의 실패와 성공이 달렸다면 책의 판매 부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은 작가에게 달려 있다. 그리하여 신소설 작가들은 독자의 욕망에 따랐을 것이고 국민독자의 소설과는 다른 서사를 구축했을 것이다. 이는 독자의 위상이 컸음을 의

30) 천정환, 위의 책, 79-81면.

31) 차봉희, 앞의 책, 54-57면.

미한다. 연애이야기로 청년들이 독서 중독이 되었다는 건 신소설의 불순함일지 모르나 출판시장의 입장에서는 환영할 일이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신소설의 주체들은 “소설은 무엇보다도 독자에게 즐거움을 주고 감동을 주어야 한다”<sup>32)</sup>는 취지하에 생성된 인물들이라 할 수 있다.

권희돈은 『血의 淚』·『花의 血』·『紅桃花』·『再逢春』·『秋月色』·『銀世界』·『月下佳人』등은 작품 내용에 부합되기 보다는 오히려 격리된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독자의 구매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역력히 나타나 있다<sup>33)</sup>고 평가하였다. 시장지향성을 추구한 작가들의 선택과 창작태도로 인해 신소설류는 초기의 ‘교화’에서 점차 ‘재미’라는 대중적 오락성을 추구하게 된 것이었다. 그것이 설령 출판법의 영향과 검열의 문제에서 출발했다하더라도 소설의 성황은 독자의 성향을 자연스럽게 대변한다. 신소설은 나름의 근대성을 지향하고 동시에 통속성을 함께 보유하고 있어 독자의 지지를 얻었으며 한글로 되어 있어 새로이 사회적 주체로 소환되고 있던 여성과 농·상·공의 평민층<sup>34)</sup>을 공략하였다. 또한 서사주체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역경을 이겨내고 종국에 행복한 결말을 맺는 고전적 요소를 지니고 있어 원래부터 고소설의 독자층들이었던 이들의 지지까지 확보하였다.

미선이 초연히 녀을 일은듯이 안젧스니 얼골은 빅설을 업슈  
히녁이고 코줄기는 씨스늬차줄기갓흐며 눈은 시벽별이 비취인  
듯흐고 눈섭은 초싱달을 그려니인듯흐 절디미식으로<sup>35)</sup>

32) 權熙敦, 『한국소설의 독자연구-개화기소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78, 92면.

33) 권희돈, 위의 논문, 94면.

34) 권보드래, 『신소설의 성(性)·계급·국가』, 『여성문학연구』 20, 한국여성문학학회, 12면.

이십이 되락말락하고 얼굴은 시골구석에도 이리일식이 잇던  
가시풀만흔 일식이라 은조사 겹져구리에 세모시 더린치마를  
입고 선을흔바람에 치운 귀운이잇던지 겁이나서 소름잇기첫던  
지 파사한 태도가 더욱어엿부더라<sup>35)</sup>

신소설의 고전적 요소들은 국민독자를 상정한 작가들의 소설과 달리 권선징악적 요소를 대부분 다루고 있다. 서사인물의 아름다움을 묘사하는 장면은 국가와 전혀 상관없는 개인적인 아름다움이며 이들이 겪어야 할 역경의 요소들은 국가와의 관계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가족의 관계로부터 형성되어 전개되었다. 여러 서사인물들에 비해 주인공의 묘사가 반복되고 강조되기 때문에 독자는 작가로부터 어떤 설명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답고 착한’ 주인공이 겪게 될 인생에 집중하게 된다.

『치악산』의 이부인, 『혈의누』의 옥련이 겪는 역경은 그 배경과 사건은 다르나 누군가로부터 구박받고 역경을 견뎌낸 후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되는 과정들은 비슷하다. 이는 남성주체도 마찬가지이다. 『춘몽(春夢)』의 안익상도 옥련과 비슷하게 고아나 다름없는 처지에서 서 외국 유학을 하게 되고 중국에는 가족을 형성하거나 만나는 것으로 결말을 맺는다. 이들 서사주체들도 국가를 언급한다. 그러나 국민독자를 겨냥한 서사주체들이 말하는 국가와는 다르다. ‘국민독자의 서사주체들’은 일본제국주의를 극복하는 국가를 말하고, ‘신소설의 서사주체들’은 『무정』의 형식처럼 외국유학을 하여 조국에 이바지할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이들이 독자를 대상으로 설득하는 방식은 다르다. 전자는 담화를 통해 작가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35) 韓國學文獻研究所, 『雪中梅』, 『新小説・翻譯(譯)小説』 3, 아세아문화사, 1978, 4면.

36) 韓國學文獻研究所, 『치악산』, 『新小説・翻譯(譯)小説』 2, 아세아문화사, 1978, 4-5면.

후자는 이야기를 직조하면서 그 의도를 드러낸다. 이러한 과정에서 실제독자를 확보한 신소설의 서사주체들은 국가와 상관없는 자신의 삶에서 벌어지는 역경에 맞서고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와 함께 구독자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을 공산이 크다. 또한 서사주체가 국가로부터의 폐해가 아니라 가족 간의 문제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는 과정은 오히려 국가에 대한 반복적인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계몽지식인들의 소설보다 공감을 얻었을 공산이 크다. 신채호나 박은식, 장지연이 의미하는 서사주체들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역경을 이겨내는데 의미가 생성되지만, 신소설의 서사주체들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서사적 문제의식을 찾고 있다. 그러한 점에서 내포독자를 겨냥한 소설의 주체는 작가의 담론에, 독자의 재미를 추구하는 소설의 서사주체는 전적으로 독자의 호응에 의지했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가치 질서가 붕괴된 자리를 대신할만한 새로운 지배가치가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서 출현한 신소설은 익숙하고 친근한 구성의 문예형식을 통해 감정적 위안을 추구하는<sup>37)</sup> 독자의 욕망에 호응하였고 그리하여 친일적인 요소가 강하였으나 한국의 소설이 근대 소설에 도달할 수 있는 매개역할을 하였다.

## 5. 결론

근대초기 소설의 독자들은 한국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호명되었다. 그러나 독자들은 작가들에 의해 각기 다른 방향으로 모색되었다. 실제 독자와 내포독자와의 경계에서 작가들이 지향했던 독자의 형상은 본래는 같은 지점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그

37) 김석봉, 앞의 책, 70면.

러나 이들 작가의 욕망은 국가지향과 근대지향의 경계에서 분리되었다. 같은 현실세계에서 그들은 근대를 극복하는 문제의 타결방안이 서로 달랐다.

국가지향의 작가들은 국민독자를 욕망했고 그들과 함께 민중이 되어 국가위기를 극복하기를 바랐다. 반면 근대지향의 작가들은 소설독자를 원했다. 신소설의 불순함이란 당대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근대 초기 한국의 특수한 식민지적 상황은 작가가 국민독자를 꿈꿀 수밖에 없는 시기였다. 그러나 국민독자의 소설이 시대적 요청에 의해 창출된 소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스스로 불순한 소설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러한 작품들의 지속성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점은, 독자는 작가에 의해 탄생되지 않고 문학작품에 의해 탄생된다는 점이다. 이는 문학작품이 작가가 아닌 독자에 의해 탄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들이 수동적 대상이 아닌 능동적 대상임을 시사한다. 카프 소설을 비롯한 현재까지의 목적적 소설이 그 지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문학자체의 문제보다 독자의 이 능동성에서 실패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독자와 실제독자를 단일한 기준으로 구획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이들은 시대마다 다른 문제의식으로 재탄생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포독자는 상상된 독자라 할지라도 작가의식을 가늠할 수 있는 유의미한 독자들이라 할 수 있다. 어느 작품이든 작가는 지속적으로 작가의식과 독자를 동일화시키고자 하는 지점이 있고 이 지점은 작가가 의도하고 있는 세계이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작가는 발언할지, 이야기를 주조할지 결정하게 된다. 그러한 점에서 근대초기의 국민독자를 겨냥했던 작가는 발언에 치중하였고, 소설독자를 겨냥했던 작가는 스토리를 주조하는데 주력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자는 스토리를 선택했다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강진구, 『한국 근대 초기 소설論 研究』, 중앙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2.
- 구장률, 『근대초기 잡지와 분과학문의 형성』, 케포이북스, 2012.
- 권보드래, 『1910년대의 새로운 주체와 문화』, 『민족문화사연구』 36, 민족문화사학회, 2008.
- \_\_\_\_\_, 『연애의 형성과 독서』, 『역사문제연구』 제7호, 2001.
- 권희돈, 『한국소설의 독자연구-개화기소설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 논문, 1979.
- 김석봉, 『신소설의 대중성 연구』, 역락, 2005.
- 김순진, 『韓日 近代小説의 比較文學的 研究』, 태학사, 1998.
- 나병철, 『탈식민주의와 근대문학』, 문예출판사, 2004.
- 大谷森繁, 『朝鮮朝의 小說讀者 研究』, 고려대학교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4.
- 朴素銀, 『1910년대 단편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1999.
- 문성숙, 『개화기 소설설론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2007.
- 박헌호, 『작가의 탄생과 근대문학의 재생산 제도』, 소명출판, 2008.
- 윤용미, 『朝鮮朝小説의 讀者層 研究』, 『한성어문학』 5, 한성대학교 한성어문학회, 1986.
- 이보영, 『역사적 위기와 문학』, 신아출판사, 2007.
- 이상섭외, 『문학·역사·사회』, 한국문화사, 2001.
- 이정우, 『주체란 무엇인가』, 그린비, 2009.
- 이정우외, 『주체』, 산해, 2004.
- 전상욱, 『세책 총 목록에 대한 연구』, 『열상고전연구』 30, 열상고전연구회, 2009.12.
- 조윤희, 『고소설의 독자(讀者)연구』, 『독서연구』 17권, 한국독서학회 2007.
- 주형예, 『매체와 서사의 연관성으로 본 19세기 대중소설 시장의 성격』, 『고소설연구』 27, 한국고소설학회, 2009.

차봉희편저,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1993.

천정환, 『한국 근대 소설독자와 소설 수용 양상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2.

\_\_\_\_\_,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8.

韓國學文獻研究所, 『新小說·翻譯(譯)小說』 1, 아세아문화사, 1978.

韓國學文獻研究所, 『新小說·翻譯(譯)小說』 2, 아세아문화사, 1978.

韓國學文獻研究所, 『新小說·翻譯(譯)小說』 3, 아세아문화사, 1978.

한기형외, 『근대어·근대매체·근대문학』,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

호르스트 슈타인메츠, 『문학과 역사』, 서정일역, 예림기획, 2000.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Readers, Authors and epic characters in the early Korean modern Age

Kim, Hee-Joo

Korea's modern era was when Avitus, a group of people who wanted to overcome the current crisis, was formed. Readers, who were chosen not as readers but as citizens, were important subjects in the author's editorial and political discussions. The novel was part of the call for political participation by the entire nation. The writer targeted political comments from readers in the preface. It doesn't matter if the speaker is a writer or a letter because the conversation has become more important. On the other hand, readers tend to focus more on epic books rather than on the questions they point to because the epic characters of the new novel do not speak to the reader in the structure of the epic. Despite the fact that Korea's special colonial situation in the early modern era was a time when it had to dream of becoming a national reader, the reader gradually moved to focusing on interesting and romantic novels rather than political ones. This shows that the reader does not remain a passive reader who is called to ideologies, but chooses literary works on his own. In this sense, the novel reader and the epic character can be imagined and shaped by the author's consciousness, but the reader can be recognized as the main character.



Although the early modern style of writing encouraged readers to move toward the masses, the reader responded more favorably to the process of finding and overcoming the cause of conflict in family affairs, not from the evils of the nation. Thus, effectively, 'imagined' readers only created a 'imagined' modern nation. However, although the nested reader is an imaginary reader, as long as there is a real diversity of the writer's consciousness, they are more significant readers. The writer who aimed at the national reader in the early modern period focused on the remark, and the writer who aimed at the novel reader focused on casting the story. And the readers can say that they chose the story.

Key words: early modern Age, novel readers, real readers, imaginary readers, epic, the main character of a novel, fictional characters

투 고 일 : 2018년 8월 24일    심 사 일 : 2018년 8월 25일-9월 12일  
게재확정일 : 2018년 9월 14일    수정마감일 : 2018년 9월 24일